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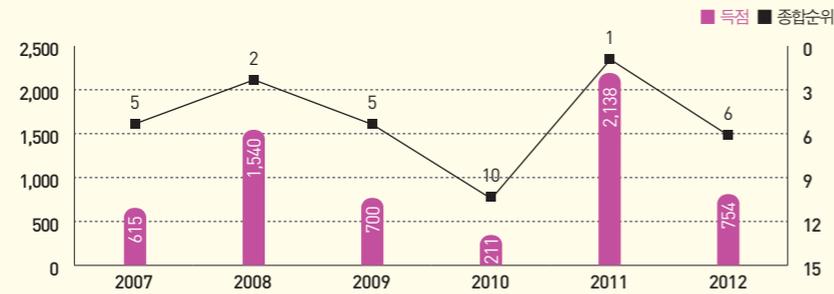
## 부산 산악 연맹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3/14	-	-	1/5	1/4	1/5
2008	3/15	-	-	1/5	0/0	2/10
2009	3/15	-	-	1/5	0/0	2/10
2010	3/14	-	-	1/5	0/0	2/9
2011	3/15	-	-	1/5	0/0	2/10
2012	3/15	-	-	1/5	0/0	2/10

###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5(615)	0/0/2	3(307)	-	5(307)
2008	2(1,540)	0/1/2	3(468)	-	3(1,072)
2009	5(700)	0/1/0	2(532)	-	7(169)
2010	10(211)	0/0/0	5(211)	-	-
2011	1(2,138)	2/1/0	1(754)	-	1(1,384)
2012	6(754)	1/0/0	9(0)	-	4(754)



### 현직 회장

홍보성  
조은하이텍건설 고문

- 1981 가내수4봉 정찰대원
- 1993 다림수라-필수라 원정대장
- 1996~1998 부산학생산악연맹 부회장
- 2004~2008 부산산악연맹 부회장
- 2004 한국청소년오지 탐사대(파미르고원) 지도위원
- 2005 한국 푸모리 원정대장
- 2006~2011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8000m급 14개 봉) 원정대장
- 부산광역시 표창
-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1876년 개항된 부산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서구 문물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기에 유입되면서 근대적 등산 활동도 비교적 일찍 시작됐다. 부산지역 향토문화의 중심지였던 동래에는 일찍부터 기영회와 동래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산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등산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부산의 등산 여명기라 할 당시는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 어떤 단체를 구성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산악회 조직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부산에서 근대등산이 태동하던 시기인 1920년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이 동래고보(현 동래고 전신) 교사로 부임하여 휴일에 학생들과 함께 금정산, 장산, 영축산 등의 근교 산을 등산하면서 일제의 압박에 대한 울분도 삭이고 애국애족하며 국토를 아끼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길렀다.

부산에서 출범한 근대적 산악단체의 효시는 1946년 4월 15일 결성된 조선산악회 경남지부라고 할 수 있다. 경남지부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신업재, 이재수 등은 1945년 9월 해방 직후에 결성된 조선산악회의 회원으로서 이전부터 부산에서 산악운동을 이끌어온 선구자들이었다. 이들은 1946년 6월 조선산악회 경남지부 창립기념으로 지리산을 올랐고, 이듬해 2월에는 본부와 경남지부가 합동으로 지리산 스키 중추 등반을 감행하는 등 활발한 등산 활동을 펼쳤다.

1950년대 말을 전후해 부산 산악계는 신생 산악회가 속속 창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1958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와 대륙산악회의 창립에 이어 이듬해에는 수정산악회와 하이커클럽, 1960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에서 독립한 자일클럽, 1961년 하켄산악회, 1962년 구봉산악회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1963년에는 부산교직원산악회, 고려산악회, 하이커클럽, 부산대 학사산악회, 부산대 의대생 주축의 여성들로 구성된 메아리클럽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부산 산악계의 저변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의 한국산악회(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조선산악회가 한국산악회로 명칭을 변경) 경남지부가 학술탐사 위주의 산악활동을 전개했던 반면, 이들 신생 산악회들은 등산의 대중화를 주도하며 이후 부산 산악운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65년 단위 산악회들이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연맹체 결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때 결성된 것이 부산산악연맹이다. 당시 부산산악연맹은 부산지역의 독자적인 연맹체로 현재의 부산산악연맹과는 다른 단체였다.

1969년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이 창립되기 전까지 부산산악계의 유일한 연맹체로서 지역



내 산악회들의 중심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부산산악연맹은 독자적인 연맹으로 한국산악회나 대한산악연맹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일부 소속 산악회들이 대한산악연맹 산하단체 구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산악회 경남지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견에 부딪쳐 눈에 띄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즈음 부산 출신의 최두고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산에 산악연맹을 구성하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던 대한산악연맹은 강호기 총무이사과 문재성 이사를 부산에 급파, 부산산악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산악연맹 결성에 급진전을 보기에 이르렀다.

1969년 9월 8일 대륙산악회 성산, 부산대 학사산악회 박진·김재도, 청봉산악회 김부갑, 고려산악회 서정준 등은 부산대 학사산악회 회관에 모여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 회장에 성산을 추대했다. 이어 9월 30일 대한산악연맹이 부산직할시연맹의 가맹을 승인함으로써 창립 준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29일 부산 중구 대청동 천연예식장에서 고려산악회(회장 우동조), 대륙산악회(회장 안성수), 동호산악회(회장 김익환), 뫼돌등반클럽(회장 박종윤), 백록산악회(회장 최일범), 한국조폐공사 주화산악회(회장 임우진), 부산대 학사산악회(회장 최상훈), 청봉산악회(회장 김부갑) 등 총 8개 단체의 대의원과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이하 부산산악연맹)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부산산악연맹은 창립 이듬해인 1970년 새해 벽두부터 조직 정비에 들어가 1월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공석이었던 회장에 김영배 뫼돌등반클럽 고문을 추대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후 명실상부한 지역 산악행정의 중심체로 활동하면서 부산 산악인들의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1970년 5월 12~13일 금정산에서 연맹창립을 전국에 알리는 범산악인대회를 열었다. 이후부터 매년 금정산에서 부산산악인들의 안전등반을 지원하는 금정제를 지내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부산산악연맹은 부설 등산학교를 설립했으며 금정암벽대회와 부산시장기 전국 직

###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69.11	창립총회
1970.05	제1회 범산악인대회(현 금정제) 개최
1981.07	부산등산학교 개설(2012년 현재 1300여 명 수료)
1981.10	제1회 부산시장기 직장인 등산대회 개최
1988.10	제1회 금정암벽등반대회 개최(현 전국 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
1996.10	제1회 금정산악마라톤대회 개최
1998.02	부산시체육회 준가맹
2001.02	부산시체육회 정가맹
2005.10	제1회 부산산악문화축제 개최(금정제, 시장기등산대회, 산악마라톤대회 통합)
2008.09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국제스포츠클라이밍대회 주관
2011.09	단일팀 세계 최초·최단기간(5년 4개월) 8000m급 14좌 완등

장인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악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이즈음 부산산악인들의 해외 고산에 대한 도전 열정도 계속 증폭돼 1982년 12월 2일 청봉산악회가 유럽 알프스의 3대 북벽 중 난이도가 높은 마터호른(4478m) 등정에 성공했다. 이는 동계 한국 초등으로, 1984년 부산산악연맹의 히말라야 원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나 아쉽게도 그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1984년에는 경남공고OB산악회가 푸타하운츨리(7246m)를, 1987~1988년 동계시즌에는 대륙산악회가 세계 제3위의 고봉 캄첸중가(8598m) 한국 초등을 일궈냈다. 그해 9월 석봉산악회는 3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미니등반대를 히말라야 눈부르(6957m)에 파견, 등정에 성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경남공고OB산악회의 조정술이 주도한 부산합동대가 다울리기리1봉(8167m) 등정의 쾌거를 달성했다.

1990년 10월 7일 한·일합동원정대(한국대장 노종백)의 에베레스트 등정은 부산 산악사에 큰 획을 그었다. 1990년대는 부산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부산지부, 부산학생산악연맹 등 3개 산악단체가 그동안의 벽을 허물고 화합의 장을 여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아울러 1997년 이병완 한국등산클럽중앙연맹 국제담당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부산산악연맹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으며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하나씩 정리해나갔다. 1998년 2월 27일에는 부산시체육회의 준가맹단체로 가입했으며, 2001년 2월 26일 정규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등산도 엘리트

### 역대 회장

제1대	김영배	1970.01~1970.08
제2대	최정식	1971.05~1972.03
제3~5대	홍순박	1972.03~1974.12
제6대	강호달	1974.12~1975.12
제7~9대	홍순박	1975.12~1981.01
제10~11대	구철희	1981.01~1985.01
제12~13대	양종수	1985.01~1988.01
제14대	김부갑	1988.01~1989.11
제15~16대	김학근	1989.11~1995.02
제17대	김철우	1995.02~1997.01/1997.01~05(이용조)
제18대	이병완	1997.05~1999.02
제19대	한기승	1999.02~2003.02
제20대	장윤근	2003.02~10/2003.10~2004.03(회장권한대행 윤원석)
제21대	하해룡	2004.03~2006.01
제22~23대	김정민	2006.01~2009.02
제24대	최금식	2009.02~2011.03
제25대	이동본	2011.03~2012.12
제26대	홍보성	2013.01~현재



스포츠의 경기종목으로 정착됐고 더불어 부산산악연맹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한편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던 해외원정도 다시 재개됐다. 부산산악연맹은 'Hope(희망) 8000'이란 프로젝트를 수립, 8000m급 14좌 완등의 대장정에 나섰다.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대장 홍보성)'는 2006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5년 4개월 만에 초오유를 등정, 단일팀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 완등의 쾌거를 이뤘다. 원정주최인 부산산악연맹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지방 언론사, 기업 등 지역의 힘만으로 일궈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부산산악연맹은 부산지역 산악인들에게 등산 활동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산악인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 양성하고 있으며 범시민 등산운동을 전개, 부산시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널리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홍보성	부경대학교산악회
학생연맹부회장	정지택	부산학생산악연맹
부회장	윤진범	동의공업고등학교OB산악회
	이종연	부경대학교산악회
	홍종표	부산학생산악연맹
	최태식	부산학생산악연맹
	조기종	금정산우회
	김철환	백두산산악회
	배영길	산용산악회
조창래	대륙산악회	
전무이사	권아섭	대륙산악회
총무이사	서성호	풀꽃향기 대리
재무이사	문병현	부산대학교OB산악회
조직이사	정광석	부산등산교실총동창회
교육기술이사	손희현	부산크라이머스
산악스키이사	차월준	부산학생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이사	박수호	부산벌라알파인클럽
	박정용	부산벌라알파인클럽
안전대책이사	권아섭	대륙산악회
일반등산이사	김태규	한국등산클럽
청소년이사	김석수	부산교육대학교산악회
학술정보이사	백진규	동아대학교산악회
환경보전이사	노재훈	청맥산악회
대외협력이사	김영근	산용산악회
	서영호	부산시민등산이카데미총동창회
이사	성광모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기획실 사업이사
감사	신용우	청봉산악회
	공충식	부산은행늘메산악회

####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28/90	2/2	2/2	3/12	-	21/74
2011	35/131	7/8	2/2	4/18	-	22/103
2012	45/156	8/10	2/2	6/13	4/7	15/124

#### 전국체육대회 성적(시범종목, 미개최 종목)

연도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산악부문 종합 순위
		고등부	일반부	
2010	0/1/0	-	은 1	1위
2011	1/0/0	금 1	-	2위
2012	1/1/0	은 1	금 1	3위

#### 주요 해외 원정

연도/시즌	내용
1982/가을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네쉬4봉(7102m) 한국 초등
1982/겨울	청봉산악회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마터호른(4478m) 북벽 동계 한국 초등
1984/봄	경남공고OB산악회 푸타하운출리(7246m) 한국 초등
1984/가을	부산합동대 탐세르쿠(6623m) 한국 초등
1985/가을	부산교대 투쿠체(6920m) 등정
1986/겨울	엑셀시오알파인클럽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아이거(3970m) 북벽 등정
1987/겨울	대륙산악회 칸첸중가(8586m) 한국 초등
1988/가을	석봉산악회 늑부르(6957m) 한국 초등
1988/가을	부산합동대 다울라기리1봉(8167m) 한국 초등, 투쿠체 북동 등정
1990/가을	한·일합동대 에베레스트(8848m) 등정
1990/가을	한오름산악회 안나푸르나3봉(7555m) 등정
1990/가을	동아대 그레이셔돔(7193m) 등정
1991/가을	상봉산악회 매킨리(6194m) 등정
1992/봄	부산벌라알파인클럽 푸모리(7145m) 등정
1992/봄	솔피산악회 로부제 동봉(6119m) 동벽 신루트 개척
1992/여름	부산교대 코르제네프스카야(7105m) 등정
1993/여름	부산공대 디람수라(6445m)-팝수라(6451m) 등반
1993/겨울	동의공고OB산악회 아마다블람(6812m) 등정
1996/가을	동아대 마나파르바트2봉(6771m) 등정
1996/가을	경남전문대 쉬블링(6543m) 등정
2001/봄	부경대산악회 매킨리(6194m) 등정
2001/가을	부산산악연맹 원정대 초오유(8201m) 등정
2002/겨울	부산크라이머스 광데(6187m) 북서벽 빙벽 원등
2003/가을	경남공고OB산악회 구르가르포리(6891m) 등반

연도/시즌	내용
2005/봄	부산합동대 푸모리(7145m) 등정
2006/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6/여름	동아대산악회 가셔브롬1봉(8068m), 가셔브롬2봉(8035m) 등정
2006/겨울	부산교대 쥘산(6410m) 등정
2007/여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K2(8611m), 브로드피크(8047m) 등정
2008/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마칼루(8463m), 로체(8516m) 등정
2009/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마나슬루(8163m), 다울라기리1봉(8167m) 등정
2010/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캉첸중가(8586m) 등정
2010/봄	동아대산악회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10/여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낭가파르바트(8125m) 등정
2010/여름	부산학생산악연맹 공거얼(7719m) 한국 초등
2010/가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시사팜마(8012m) 등정
2010/겨울	부산대OB산악회 아마다블람(6812m) 동계 등정
2011/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인나푸르나1봉(8091m) 등정
2011/여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가셔브롬1봉(8068m), 가셔브롬2봉(8035m) 등정
2011/가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초오유(8201m) 등정



# 43

## 부산 컬링 협회

### 현직 회장

신성욱  
표준종합건설(주) 대표

부산컬링협회는 동계종목의 불모지인 부산시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함께 부산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하계종목과 동계종목을 아우른다는 취지로 초대 김주태 회장을 중심으로 2000년 2월 창립했다.

2000년 6월 부산대저고(남자고등부), 부산외고(여자고등부) 2개 팀 창단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협회장배 전국컬링대회에서 여자고등부(부산외고) 금메달, 남자고등부(부산대저고)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현재까지 꾸준히 전국 상위에 랭크돼 왔다.

하지만 협회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부산시에는 선수들이 훈련할 빙상경기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부산에서 대구 빙상경기장까지 기차로 이동해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된 훈련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01년 동계체육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을 차례로 격파했다. 그러나 급기야 대구 빙상경기장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02년부터는 훈련장소를 전주로 옮겨 매주 토요일 새벽까지 밤샘훈련을 계속했다. 당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감독교사 신영국, 이종선 등은 친구들의 차량을 빌려 선수들을 태우고 다녀야 했다.

2005년에는 부산시에도 북구빙상경기장이 생기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훈련한 뒤에도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공부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고생 끝에 부산외고 선수들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아주대, 해군사관학교, 대전대 군사학과에, 그리고 대저고 선수들은 동아대, 인제대, 창원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때 그 선수들이 부산컬링협회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연표

일자	내용
2000.02	창립총회
2000.06	부산대저고 남자 고등부 선수 5명, 부산외고 여자선수 5명 창단식
2001.02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4팀 출전 당시 컬링정식 종목 인정 남자고등부, 여자고등부 금메달 획득
2001.02	부산시체육회 준가맹단체 인준
2002.02	부산시체육회 정가맹단체 인준
2003.10	협회장배 전국컬링대회 부산유치
2006.02	태백곰기 부산대저고 3연패 달성
2006.10	협회장배 전국컬링대회 부산유치
2008.02	제89회 동계체육대회 부산 유치
2008.04	부산남자일반부 국가대표선수 발탁
2008.11	아시아태평양대회 국가대표 참가 4위
2009.08	김주태 회장 사직
2010.02	이종선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2011.02	신성욱 회장 취임